

# 살레시오여고 듀엣 실력에 흥진영 '엄지척'

### 살레시오여고 학생 그룹 '빛고을 광주교육 스타발굴단' 선정

그룹 '한정판' 한지에·이유정 학생 영상 보고 응원 메시지 "힘들고 고민 많은 시기지만 더 열심히 앞만 보고 갈게요"

광주 살레시오여고 학생 그룹을 응원하기 위해 트로트 가수 흥진영이 나섰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출신 스타들이 지역 학생의 꿈을 응원하는 '빛고을 광주교육 스타발굴단'의 세 번째 영상에 '한정판'이 선정됐다. "한정판"은 살레시오여고 2학년 한지에, 이유정 양으로 구성된 학생 그룹. 이날 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흥진영은 학생들의 아름다운 음색에 '엄지척'을 보내고 스타로 성장하기를 기원했다. 두 학생은 Jessie J의 인기 팝송 'Flash light'를 자신들만의 맑은 음색과 완벽한 하

모니로 노래했다. 또 한지에 양은 흥진영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진영 언니가 방송에서 무명시절 이야기를 하며 눈물 흘렸던 게 떠올랐어요. 아이돌 출신에서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며 받았던 안 좋은 시선, 언니의 음악을 보여주기 위해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했던 것들, 힘든 일이 많았지만 끝까지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던 언니가 정말 멋있어요"라며 "저도 힘들고 고민이 많은 시기지만 화려한 언니에게도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더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고 싶어졌어요"라고 적었다. 한두석 광주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먼



살레시오여고 학생 그룹 '한정판'의 이유정(왼쪽)·한지에(중), 오른쪽은 가수 흥진영. (광주교육청 제공)

저 끼와 능력을 가진 우리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 준 가수 흥진영에게 감사하다"며 "광주 지역 많은 학생들이 빛고을 광주교육 스타발굴단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꿈과 적성을 발견하고, 셉들의 응원에 힘입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금호타이어, 추석 명절 맞이 '이웃사랑 캠페인'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전대진)는 추석명절을 맞아 광주·곡성·평택공장 인근 독거노인가구와 노인복지관에 제수용품 및 식료품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을 펼쳤다. 금호타이어의 이웃사랑 캠페인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명절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시작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설, 추석 명절 때마다 이웃들에게 제수용품과 함께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금호타이어는 광주 소재 지역 독거노인 등 이웃들에게 1200만원 상당의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했다. 후원품은 광주시 광산구청과 광산구 어룡동주민센터,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곡성군 입면사무소, 평택시 포승면사무소 등을 통해 230명의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한편 올해 19번째를 맞는 '이웃사랑 캠페인'은 금호타이어의 대표적인 지역사랑 활동으로, 현재까지 약 9360여명의 이웃들에게 제수용품을 전달해 왔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스타 트랙' 작가 "한글 창제 세종대왕에 매료돼 소설까지 썼죠"

### 역사판타지 소설 '킹 세종 더 그레이트', 한글날 공식출간

세계적인 TV 공상과학(SF) 시리즈 '스타 트랙'을 집필한 미국 드라마 작가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얽힌 이야기를 소설로 창작해 눈길을 끈다. 도서출판 핏북은 드라마 작가 겸 제작자 조 메노스키가 쓴 역사 판타지 '킹 세종 더 그레이트'를 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식 출간일은 574돌 한글날인 다음 달 9일이다. 영어가 모국어인 작가인 만큼 영어 원본 'King Sejong the Great'를 먼저 집필하고 이를 한국어로 번역했다. 한글판과 영어판은 같은 날 동시에 나온다. 메노스키는 5년 전 처음으로 한글을 접하며 세종대왕을 알게 됐다. 이 우수한 문자 창제를 왕 한 사람이 주도했다는 사실에 매

료됐다고 한다. 그는 이후 한국을 오가며 자료를 찾아 공부하면서 세종대왕을 영웅으로 숭배하게 됐으며, 대왕의 매력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소설을 쓰게 됐다고 출판사 측은 전했다. 메노스키는 SF적 상상력을 발휘해 세종대왕이 한글의 세계 반포를 위해 기독교 사제와 만나는 장면이나 '세계 모든 언어'를 수집해 세종대왕에게 가져오는 여관 등을 등장시킨다. "한글을 처음 알았을 때 충격을 받았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글 자체가 가진 기록 체계의 정밀함과 기능적인 우월함도 대단했지만, 이 모든 것이



천재적인 왕에 의해 창제되었다는 스토리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런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메노스키가 '작가의 말'을 통해 밝힌 세종대왕 한글 창제에 대한 단상이다. 그는 이 소설을 영화와 드라마로도 만들 계획이다. /연합뉴스

## 한국 여성운동 선구자

### 이이효재 교수 별세

여성학자이자 사회학자로서 1세대 여성운동의 기틀을 닦은 이이효재 교수가 4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1924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난 그는 1977년 국내 최초의 여성학과 설치를 주도하는 등 한국 상황에 맞는 여성학 도입·연구에 힘썼다. 한국여성민우회 초대 회장과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등을 지내며 한국 초창기 여성운동을 이끌었다. 1980년에는 광주 학살을 자행한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시국선언으로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복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공군 1전투비행단, 경로당 7곳에 위문품 전달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추석을 맞아 최근 지역 경로당 7곳에 위문품을 전달했다. 위문품은 통일 곡수, 우리밀 건빵 등 지역에서 생산된 우리밀 제품으로 구성됐으며, 광산구 동곡동, 서구 마북 1·2동, 서구 덕흥동, 북구 용두동, 진북도 고창 동호리 등 총 7개 경로당에 전달됐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공>

## TV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엄마가 바램났다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기막힌 유산 40 지구촌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특집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기막힌 유산 40 지구촌 뉴스	45 공부가 머니? 스페셜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아성여정(재)	00 좀비탐정(재)		00 귀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동해수호대 50 뽀뽀뽀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특별대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듣는다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안녕 우리말 55 나의 살던 고향은(재)	20 꿀잼 영화가 좋다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5 덕덕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미니다큐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대(재)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시사건전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다큐멘터리 3일(재)	00 기분 좋은 날(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
[5]	00 뉴스7 광주전남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북면가랑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저녁뉴스 50 배낭 메고 인생 네 컷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5 오매! 전라도	50 최강 1교시(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글날 기획 우리말 겨루기	50 비밀의 남자	15 찬란한 내 인생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기막힌 유산	30 전교톱10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좀비탐정	20 연애는 귀찮지만 외로운 건 싫어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0 더 라이브	40 개는 훌륭하다	30 백팩터 편의점 디너쇼 스페셜	00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10 다큐 인사이트(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통합뉴스룸 ET(재)	05 나 혼자 산다 스페셜 여자들의 은밀한 파티 스페셜 25 지도의 뒷면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이야기	30 나이트 라인

## EBS1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최고대 호기심딱지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퓌트! 퓌트! 하니
07:00 꼬마버스 타요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9:00 위베어 베어스 : 곰 버러더스
07:15 출동! 슈퍼월스	12:25 지식채널e	19:30 자이언트 팽TV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2:30 클래스 e	19:45 돈이 되는 토크쇼 - 머니톡
07:45 꼬마하어로 슈퍼팩	13:00 EBS 다크프라이미	20:35 아주 각별한 기행
08:00 당동영 유치원	13:55 다문화 고부 열전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30 티시테시	14:45 미라클러스 : 레이디비그와 블랙캣	<아시아 밥상 기행-대지의 맛, 중국>
08:45 방구대장 뽀뽀	15:45 머털도사	21:30 한국기행
09:00 픽시	16:15 로빈 후드	<죽기 전 한 번쯤, 명당 1부>
09: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16:30 당동영 유치원(재)	명당의 정석, 안동 하회마을
09:30 명탐정 피트	16:50 해오와 해오	21:50 EBS 다크프라이미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2:45 신계속의 맛터사이드 다이어리
10:30 한국기행(재)	17:20 마사와 곰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출동! 슈퍼월스	23:50 클래스 e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5일(음 8월 19일 辛巳)

子	丑	寅	卯	辰	巳
36년생 순간적인 성급함이 공극에 이르러 손재수를 야기하리라. 48년생 민첩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놓치겠다. 60년생 일상생활 속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72년생 낯은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84년생 새로운 요소가 개입되면서 혼란스러워지리라. 96년생 경험을 살린다면 무난하게 타개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0, 68	37년생 재앙은 지극히 조그마한 데에서부터 생기는 법이다. 49년생 무의식적인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다. 61년생 새로운 문서나 뜻밖의 수입이 발생하리라. 73년생 확실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한다. 85년생 노파심으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97년생 지나 간 일을 되돌아본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0, 63	38년생 지나친 기교가 오히려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다. 50년생 불청객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겠다. 62년생 생 절제 속에서만이 건설한 진보가 있을 것이다. 74년생 여가서 틀어지면 막판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86년생 완전하지 않다면 위험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98년생 아는 길도 물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61, 60	39년생 현실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51년생 원칙과 기본을 중시 한다면 안정함을 도모할 수 있다. 63년생 모두가 도운다는 것은 아니다. 75년생 밤심 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 87년생 기본적인 관리를 잘 한다면 무탈 하리라. 99년생 종류와 형태에 따른 변수의 폭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33, 76	40년생 절실히 필요하다면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생산적이다. 52년생 이루어 놓고 말해도 늦지는 않으니 입을 꼭 다물어라. 64년생 조정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76년생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좋다. 88년생 상대의 기대 심리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00년생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1, 94	41년생 고민하지 말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라. 53년생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하라. 65년생 때와 장소를 가려야만 한다. 77년생 괜히 나섰다 가는 이상한 임장이 될 수도 있다. 89년생 기발한 발상이 필요한 때이다. 01년생 적극적인 참여가 보람을 가져다준다. 행운의 숫자 : 05, 69
42년생 준수하지 않는다면 위험에 노출 될 것이다. 54년생 근면함이 복을 부르리라. 66년생 상대적인 변수가 나타나서 예상 밖의 판도를 구성할 수도 있다. 78년생 뒷방머리에서 완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90년생 자신감부터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02년생 진보하지 않는다면 떠밀려날 것임에 틀림없다. 행운의 숫자 : 10, 66	31년생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기로에 서게 되리라. 43년생 때가 아니면 물러나서 기다려야겠다. 55년생 누구도 알지 못하는 혼자만의 끈혹스러움이 보인다. 67년생 절제하지 않는다면 순간적으로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 79년생 예견된다면 피하는 것이 안전하며 지극히 현명하다. 91년생 격식에 맞아야 제 빛을 발하리라. 행운의 숫자 : 39, 51	32년생 제3의 요소가 개입되면서 복잡해지지만 한다. 44년생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상대는 다 알고 있으니라. 56년생 고귀함을 이루는 마당에 도달 할 것이나. 68년생 시종일관 방심하지 않고 조심만 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 80년생 훨씬 앞당겨져서 처리되는 세계이다. 92년생 모르고 있었으면 더 나은 뻔한 일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2, 56	33년생 현재의 국면을 극복한다면 머지않아 행운이 따른다. 45년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라. 57년생 거점을 확보하는 단계에 도달 할 것이나. 69년생 희구 한다던 실제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81년생 소상하게 알기 전까지는 속단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93년생 무리 없이 잠재우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14, 73	34년생 곱다 그렸던 이상적인 것을 우연히 마주칠 수다. 46년생 약속되어 있는 바나 마찬가지로. 58년생 처지와 상황을 감안하여 처신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70년생 의도는 좋으나 효능이 약한 것이 아쉽다. 82년생 가법적 여길 문제가 아니다. 94년생 마음을 터놓고 얘기 해본다면 쉽게 합치하리라. 행운의 숫자 : 26, 97	35년생 불타오르는 기세이므로 잘 살펴야겠다. 47년생 본디의 것과 비슷한 형태를 이루리라. 59년생 의지만 있다면 무궁무진한 발전성이 보인다. 71년생 스스로 들어켜본다면 이익의 폭을 넓힐 수 있다. 83년생 원래 마음먹은 대로만 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95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획기적인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행운의 숫자 : 40, 58